

# 농어촌공사 진산지사,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홍보

박성민 | 승인 2024.09.18 15:41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·산청지사는 전통시장에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 사업인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집중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.

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(65~84세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·이양하는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,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.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,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,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.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(1577-7770), 농지은행포털([www.fbo.or.kr](http://www.fbo.or.kr)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

이은수 진주·산청 지사장은 "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,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라고 밝혔다.

박성민기자

